

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27개 사업 완료

광주시, 직행버스 개통 등 '30분 생활권' 구축...진입로·택시제·공동학군제 해결 과제로

광주전남혁신도시(이하 빛가람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속속 진행되면서 입주민 생활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 공동학군제 시행이나 택시업계 공동사업구역 지정 등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통, 문화관광, 의료복지, 일자리 등 5개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29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27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중이다.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광역버스인 1160번(혁신도시~광주공항) 노선 신설 및 광주~나주 간 광역환승 할인제 시행, 광주~혁신도시 간 직행좌석 버스 운행으로 광주와 혁신도시 간 30분 이내 생활권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나주~남평간 도로 확장(4차선→8차로)과 국도 1호선 등 혁신도시 주요 도로의 교통표지판 50곳 정비 등을 통해 교통문제를 크게 개선시켰다고 평가했다.

남도문화 탐방과 광주의 명소를 찾아가는 광주버스타어와 혁신도시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임직원과 가족에게 문화 예술 관광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의료편의 제공을 위해 전남 대병원과 나주종합병원, 영산포제일병원 간 원격 응급 협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밖에 임직원 가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생활정보지, 문화예술공연 일정이 담긴 책자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으로 이주한 임직원에게 줄 계획인 '이주정착금 지원'은 시의회 심의가 남아있지만 전남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임직원 빼가기'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특히 이주시 최대 고려사항인 자녀 교육 문제 해결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광주~혁신도시 간 공동학군제 시행은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나주시 택시업계간 혁신도시 공동사업구역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임직원과 가족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공동으로 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전 등 14개 기관이 입주를 완료했다. 임직원은 6200여명에 이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엄마야 누나야' 배경

드들강 십리송 복원

2017년까지 22억 투입

광주전남 지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나주 드들강 유원지의 십리송(十里松)이 복원된다.

영산강의 대표 지류 중 하나인 드들강의 행정명칭은 지석강이다. 삼각주 형태로 잘 발달한 이곳은 흰 모래와 맑은 물로 특히 여름철 피서객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일제 강점기 소월의 시 '엄마야 누나야'에 곡을 붙인 월북 음악가 안성현(1920~2006)이 이곳 고향 솔밭 백사장을 떠올리며 민족의 광복을 희망하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던 곳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조에는 남평 현감(縣監) 우성(禹成)이 처음으로 제방을 쌓고 현감 윤광서와 임상덕이 강을 따라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강바닥 정비와 골재채취, 농토개발 등 개발과정에서 소나무는 사라지고 남성리 일대 드들강 유원지에만 일부 소나무 군락이 남아 있다.

나주시가 이 십리송을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한다. 제방을 보호하고 태풍 등 자연 재해를 막기 위해 심었던 옛 취지를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나주 남평대교에서 드들강 유원지까지 4km구간에 소나무 등을 심고 하천을 복원할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마친 뒤 공사에 들어가 2017년 마무리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9일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해 십리송 복원이 마무리되면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주=정철원기자 chjung@



나주 드들강 유원지 십리송 전경. 나주시는 광주·전남 대표 유원지로 유명한 이 십리송을 복원할 계획이다. <나주시 제공>

쓸 곳 많은데

전남도의 사회복지 수요는 가장 많지만, 취약한 재정으로 자체적으로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등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초과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남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 간 복지재정 분담 관계 재정립, 중복 사회복지사업 점검 체계 구축, 전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사회복지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전남복지재단이 전남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전남복지포럼에서 '전남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재정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

전남도 사회복지

기초수급자 등 비율 33.9%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 복지수요 자체 감당 어려워

선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남도의 사회복지 수요 대상자는 64만9865명으로서 전남도 전체 인구의 33.9%로 나타나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에 반해 재정자립도는 20.6%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남도는 사회복지수요는 매우 많으나 재정력은 매우 낮아 자체적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단기적

쓸 돈이 없다

으로는 국고보조비를 재설정 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증세와 복지재정 확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재정이 갈수록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복지부담률은 24.3%로 OECD 평균(34.1%)에 크게 미달했으며, 전체 30개국 중 28위로 나타나 '저부담·저복지 구조'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복지디폴트. 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초 발표에 나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차홍봉 사회복지협의회회장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원의 구조 조정 ▲지자체 간 사회복지 불균형 해소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古都' 나주·상주 전통 문화도시 추진

전남·경북도 등 자원화 사업 예타 신청

전남도가 최근 경북도, 나주시, 상주시와 함께 추진중인 '영·호남 지방유래 고도 전통 문화 자원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4개 자치단체는 12~13일 나주 동신대에서 영·호남 지방유래 역사 인물 포럼을 연다. 지난해 8월 영호남 지방유래 고도 전통문화 자원화 사업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9월에는 상주에서 영·호남 교류를 위한 역사 인물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영호남 지방유래 고도 전통문화 자원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양도는 이 사업을 오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000억원(정부 예산 500억원·지방 예산 5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고도 상징 게이트 조성 ▲호남 종가 문화진흥원 건립 ▲경상도 역사관 설립 ▲영산포 역사문화단지 조성 ▲조선 감영 역사 터널 조성 ▲수변공원 조성 ▲전통 가로 공원 조성 ▲구도심 가로 환경 정비 ▲야간 경관 조성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호남 역사 고도의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쇠락한 도시를 전통문화 도시로 재생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문화콘텐츠·의료복지·전통시장 활용

광주 동·남구 소셜벤처형 일자리 만들자"

광주상의 고용포럼

광주에서도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동구와 남구에는 어떤 업종의 일자리가 적합할까. 조선대 경영학부 정진철 교수는 청년의 창조적 도전형 일자리와 소셜벤처(Social Venture)형 일자리를 추천했다.

의료콘텐츠, 의료복지, 전통시장 등 동·남구가 지닌 지역특성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최근 광주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고용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주 동구 및 남구 특성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 아이템 발굴 연구'란 주제 발표문을 내놓았다. 그는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가진 사회적기업가가 창출한 일자리가 소셜벤처"라며 "동·남구는 지역 특성을 지닌 공동체 자원을 기반으로 소셜벤처를 접목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소셜벤처 사업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여행 ▲시니어케어 ▲푸드 분야에서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10여개의 일자리를 동·남구에 추천했다.

여행분야에서는 건축여행 기획자·여행비디오 창작자·의료관광 컨시어지(concierge)·장애인 여행 코디네이터·캠핑비즈니스 전문가 등을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로 제시했다.

의료복지분야에서는 시니어 여가생활 매니저·시니어 전화안부 상담사·치매생활 코디네이터 등을, 농림어업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꾸러미 식단 플래너·푸드 애널리스트·반려동물 음식 코디네이터 등을 제안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서비스업과 3D 콘텐츠산업에 동·남구가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관련 분야의 자본과 기술이 모이고 있는 만큼 콘텐츠 개발·기획·제작 인력을 양성해 응용기술을 상용화하고, 창조콘텐츠제작센터 등을 인프라로 콘텐츠 유통인력의 집적화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 '고려인 정착지원' 국민통합 대상 받아

국민통합위원회는 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시상식을 열고, 광주시장의 '고려인 주민 광주공동체 정착지원' 활동에 대상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3년 10월 전국 최초로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고려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고려인의 날 행사지원, 한국어교육 및 자녀돌봄 활동 등을 통해 고려인

관여증진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위 한광국 위원장은 "오늘 발표회 및 시상식을 통해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통합 활동이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위는 이날 발표된 국민통합 우수사례를 책자로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유관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당신의 광장/젊음의 광장! U-square

U-square점

YONAMJA
STEAK/ PASTA/ PIZZA/ BEER

- STEAK ₩12,500~
- PASTA ₩11,900~
- PILAF ₩7,900~
- PIZZA ₩11,600~
- SALAD ₩9,900~

100% Handmade Pizza

☎062/673-797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부동산 시장 전망과 유망 투자지역 **대분석 무료세미나**

누구에게나 명쾌하고 속 시원한 부동산 실전 투자 특강

장 소	NC백화점(구. 현대) 10층 문화센터
일 시	2015. 11. 12(목) 오후 2시/7시
문의전화	(062) 383-1330(사전 예약)

강/의/내/용

- 1교시 2015년 이후 부동산 투자 트렌드의 변화 및 트렌드별 투자 전략 대응법
- 2교시 (1) 아파트의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미래가치 분석 및 투자 노하우 (2) 리스크를 피하는 제대로된 실전 부동산 투자법 공개
- 3교시 (1) 광주·전남 개발 계획에 따른 핵심 부동산 및 토지 투자처 매물 공개 및 수익성 분석 (2) 광주 수익형 부동산 선택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들

김영표 부동산 실전투자 전문가
(현) 영지R&D 부동산연구소 대표
(현) 영지부동산 아카데미 대표
(현) 각종 관광 및 대학/호텔 특강 강사
(현) 전국 순회 부동산 세미나 80회 이상 강의
(현) 롯데백화점 및 각종 백화점 문화센터 특강 강의
뉴스웨이 인터넷신문 집행계장

NAVER 영지R&D부동산투자연구소 검색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